

#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 내년도 예산안 6529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에 근접

익산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모두 6,529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6,550억 원에 근사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일부 삭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최소 몇 백억 원은 증액해야 2018년 국가예산 최종액인 6,721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은

회의 종료 후 국회 문체위, 농해수위, 예결위, 국토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을 순차적으로 만나 시정 주요 핵심사업이 2019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체위 정세균 의원에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익산시의 관광 자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김종희 의원에게는 익산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준비를 위한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 예결위 박용진 의원에게는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 구축을 위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과 호남선 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국토위 안호영 의원에게는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에 꼭 필요한 동면천·왕궁천 하천 정비사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중 하나인 홀로그래픽콘텐츠 구축사업의 예산을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므로 간부공무원들이 활동을 통해 삭감 및 증액 필요사업이 국회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의회 주요업무 결산 보고

익산시의회의(의장 조규대)는 제213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8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열고 의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먼저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5년, 10년이 지난 후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여 불편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미납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균 의원은 익산지역 농산물 판

매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 및 국외 판매도시에서 홍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 자체종합삼사가 각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내실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기를 강조했다. 운영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청소년자살률 1위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소년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

진해주기 바라고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연 의원은 정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의 슬로푸드센터가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노력해달라고 했다. 임형택 의원은 체전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 지역 경제에 효과라든지 성과 등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 시민 불편 최소화 동절기 제설대책

군산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해, 제설차 등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동절기 제설작업 상시 출동체제에 돌입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적설량에 따른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사로 등지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시에서 보급한 트랙터 장착 제설기를 제설작업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최영환 건설과장은 “폭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폭설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설차량 통행을 위해 갓길 주차를 삼가고, 우리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행정력 집중

군산시는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진, 화재, 한파, 태풍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재난별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안전디딤돌 앱 배포 및 설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뉴스를 확인하고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재난유형별 국민행

동요령, 대피소 위치 등을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과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과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를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집중 홍보해 재난예방 및 재난 시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생활SOC공모사업 선정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2019년 체육시설 생활SOC사업에 실내 펜싱장과 실내 야구연습장이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SOC사업이란 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생활SOC사업에 공모하게 됐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행정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는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일 익산시 국민생활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생활관의 헬스, 탁구, 수영장 등의 시설물을 둘러 본 후 직원들에게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이용 시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물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의 주요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현장행정을 통한 이용객들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기부채납 협약식

2018. 11. 7(수) 14:00

군산시는 어린이들에 안전한 환경을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 어린이에 맞는 놀이터 환경 조성

군산시·씨프로그래프 협약... 6억8300만원 투입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일 씨프로그래프(대표 염윤미)와 어린이 놀이 환경 개선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 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기존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게 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조촌동 권역 3개 어린이공원 [어린이 제4공원(군산시 조촌동 745-1), 어린이 제38공원(군산시 조촌동 876), 어린이 제40공원(군산시 조촌동 919-4)]이 다양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령대별 요구에 따라 중학생 이상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Play Field 놀이마당(가칭),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매달리기, 문덕하기 등 다양한 신체놀이가 가능한 '모험의 언덕(가칭)',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모래놀이 등이 가능한 '부메랑(가칭)공원' 등 어린이공원을 테마별로 조성하고 있다. 군산시의 씨프로그래프 공동 투자해 총 6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2월 초 준공될 예정이며, 씨프로그래프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군산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놀 권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찾아가는 문화장터 운영

2만원 영수증 제시하면 기념품 증정

익산시는 8일 시내 모현동 배산후면시아 5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발급자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누리카드 구매 가능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다. 장터에서는 익산지역 업체 공예작가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천연염색 스카프·모자·침구류, 한지사수묵·양반, 잡화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판매 당일 2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7,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지원받은 금액은 올해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 장터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예술 공연 관람과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 향유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연간 1인당 7만원을 지원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